

# 무크지 출현의 배경과 맥락

- 『마산문화』를 중심으로 -

김문주\*

## 1. 들어가면서

한국 최초의 무크지<sup>1)</sup> 『실천문학』이 출간된 것은 1980년 봄이었지만 최초 발행하려 했던 시점은 1979년 하반기였고, 통념상 ‘무크지 시대’ 개막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창작과비평』(이하 『창비』), 『문학과지성』(이하 『문지』)의 폐간은 1980년 7월이었다. 두 잡지는 여름호(1980.6)가 출간되고 가을호를 준비하던 7월에 폐간을 통보 받았고<sup>2)</sup>,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1) 무크(Mook : magabook / bookazine)는 잡지(Magazine)와 책(Book)의 중간 형태로 서, 잡지에 담을 내용을 단행본 형식으로 엮어 낸 것을 말한다. 형식은 유사하지만 부정기적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잡지와는 상이한 간행물이다. 정기성(定期性)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방향성을 띤 잡지 스타일의 책을 발간할 때 활용된 무크지는, 1973년 미국출판계에서 최초로 출현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0년 3월 『실천문학』으로 처음 등장한다.
- 2) 1980년 7월 31일 문화공보부는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172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전체 정기간행물의 12%, 유가지(有價誌)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등록취소 사유는 1)비위·부정·부조리 등 각종 사회적 부패 요인 제공 2) 음란·저속·외설적 내용으로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내용 게재 3)계급의식 격화 조장, 사회불안 조성 등이었다. 등록이 취소된 간행물 중에서 신군부에 가장 쏠려있던 잡지는, 월간지의 경우 함석헌의 『씨오·르의소리』, 신학자 안병무의 『현존』 그리

이후 1980년 12월 공표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정기간행물-연2회 이상 발행되는 계속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무크지의 간행은 본격화된다. 시기적으로 『실천문학』의 출간이 두 잡지의 폐간보다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무크지의 첫 출현이 후자의 직접적인 계기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님을 뜻한다. 물론 『실천문학』 이외의 많은 무크지들이 두 잡지의 폐간 이후 생긴 일정한 공백으로 인해 자극을 받았고<sup>3)</sup> 여기에 참여한 편집진들이 이들 잡지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입었음을 고려할 때, 『창비』 『문지』의 폐간은 무크지 등장에 한 요인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서 두 잡지들의 폐간을 무크지 출현의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그 의미를 제한한 것은, 넓게 보아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던 『실천문학』이 『창비』가 간행 중이던 1979년 발간을 계획했다가 1980년 봄에 출간되었고, 폐간 이후 30종<sup>4)</sup>이나 되는 다양한 양상의 문학 관련 무크지들이 발

고 『뿌리깊은나무』, 『월간중앙』, 『기자협회보』 등이었고, 계간지의 경우 『저널리즘』,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등이었다. 이 가운데 『창작과비평』은 신군부에 가장 문제적인 잡지로 인식되었으며,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 『문학과지성』의 폐간은 “일부 불온한 지식인 집단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는 잡지”라는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파시즘적 언론 문화탄압 ‘한국판 문서갱유’ : 실록민주화운동44』(경향신문, 2004.2.15)와 『신군부 언론 압제에 맞선 ‘문화계릴라’ : 실록 민주화운동50』(경향신문, 2004.3.28.), 그리고 김병익의 『문학과지성 폐간당하다』, 『글 뒤에 숨은 글』(문학동네, 2004)을 참조할 것].

- 3) 두 잡지의 폐간으로 인해 생긴 공백은 단순한 발표 지면의 축소라기보다 이들 잡지가 보여주었던 진보적 경향의 가치적 소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 간행된 무크지들이 두 잡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것을 고려하면 그 공백은 『창비』와 『문지』가 만들어놓은 장(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잡지가 폐간된 당대에도 『현대문학』, 『월간문학』, 『현대시학』, 『문학사상』 등의 잡지는 여전히 간행되고 있었다.
- 4) 처음으로 문학 관련 무크지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원재길은 문학-무크지로 꼽은 것은 <실천문학, 우리 세대(시대)의 문학, 언어의 세계, 지평, 삶의 문학, 문학의 시대, 여성문학, 전망, 창작과 비평,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정통문학, 우리문학, 문학예술운동, 노동문학, 민족과 지역, 마산문화, 공동체문학, 포항문학, 민족과 문학, 분단시대, 민족과 지역, 오늘의 문학, 여성운동과 문학, 표현, 민의, 문화비평> 등 26종이었고, 이후 관련 주제를 재검토한 임현영은 이 중에 <여성문학, 정통문학, 포항문학, 분단시대, 오늘의 문학, 여성운동과 문학, 표현, 민의, 문화비평>을 빼고 <노동해방문학, 르브르시대, 땅의 사람들, 현장문학> 등의 4종을 새로 추가하였

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기존의 『창비』나 『문지』를 통해 담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양대 계간지 모두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인 소통구조와 비대중적인 동인지 성격의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었죠. 그런데 수용문학의 측면에서 1970년대 문학을 바라보면 놀라운 문화변동 양상이 나타납니다. 1970년대 문학이 나름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학생운동, 언론운동, 종교운동, 그리고 뒤늦게 동참하게 되는 노동운동의 연대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문화운동의 장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sup>5)</sup>

『실천문학』 창간에 참여하였던 박태순이 잡지 발간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밝힌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로 많은 무크지들의 창간사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한다.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인 소통구조와 비대중적인 동인지 성격”으로 적시된 두 잡지의 한계는 그 동안 『창비』와 『문지』가 일구어낸 성과들을 반증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들 잡지의 영향을 받은 수용자층의 욕구와 의식이 성장하였고 점차 분명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대의 문학 독자층은 더 이상 두 잡지의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독자, 순종하는 수용자가 아니라, 말하고 싶은 욕망과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춘 비판적 수용자로 성장하였음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무크지 출현의 당대적 필연성으로 박태순이 꼽은 “놀라운 문화변동 양상”, 즉 다양한 운동 계층과 세력들의 연대, 그래서 필요

---

대원재길의 「80년대 문학 종합 무크지의 실태」(『문화예술』 124호, 1989), 임현영의 「1980년대 무크지를 통한 문학운동」(『작가연구』 15호, 깊은샘, 2006)을 참고할 것.

5) 박태순이명원, 「소설가 박태순에게 들어보는 1980년대와 『실천문학』, 그리고 문학운동」, 『실천문학』 105호, 2012·봄, 107쪽.

하게 된 “문화운동의 장”은 무크지시대의 도래가 시대적 요청의 산물임을 웅변해준다. 문학 무크지들의 성격을 총정리한 원재길은 “80년대 무크지들이 이 두 개의 잡지를 계승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두 잡지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 내지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6)</sup>고 했던 것 또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소통과 참여, 연대와 운동에 대한 갈망은 언론 통제에 의해 만들어진 공백을 새로운 열림의 장(場)으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위에서 박태순이 지적한 “문화운동의 장”으로서 무크지를 요청하였던 당대의 문화변동 양상을 ‘마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서 ‘마산’이라고 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어 80년대 『마산문화』에 이르는 과정까지 진행되었던 일련의 지역 운동의 양상을 임의적으로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무크지로서의 『마산문화』가 우발적 계기에 의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변혁 운동의 과정 속에서 출현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이 작업은 『마산문화』를 꾸린 문화운동 주체들의 역량 형성 과정을 살피고, 이들이 지향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문화운동 내용의 세부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무크지시대의 의미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원재길에 따르면 80년대 간행된 무크지 26종 가운데 지방에서 발행된 것은 13종이었다.<sup>7)</sup> 전체 무크지 중에 절반이 지역에서 발행되었는데, 이는 무크지 시대 이전/이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문학잡지의 지역 발행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한 것이었다.<sup>8)</sup> 앞서 기존 문단의 한계로 박태순이

6) 원재길, 앞의 글, 144쪽.

7) 무크지의 지역 간행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에서 4종, 부산·대전·대구에서 각 2종, 마산·포항에서 각 1종이 발행되었다(원재길, 앞의 글, 147쪽).

8) 80년대 이전 대부분의 문학잡지가 서울에서 발행되었으며, 지역의 출판 역량이 그나마 개선된 시기였던 무크지시대 이후 문학매체의 서울 집중현상은 다시 심화된다.

지적인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인 소통구조와 비대증적인 동인지 성격”의 문제가 무크지의 지역 발행이라는 현상에서도 반증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에서 발간된 무크지들은 공히 문화/문학의 지방주의 시대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중심의 문학, 민중들의 삶과 무관한 자기도취적 문학주의, 그리고 지식인과 특정 문학엘리트 위주의 폐쇄적 문학시스템에 대한 강한 부정의 발로였다. 소수 문학인들의 독점과 서울-중앙집중화, 그리고 담론중심주의는 함께 결연된 현상으로서, 이는 현실과 현장, 삶과 민중,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지역 무크지들이 타개하고자 한 현실이었다.9) 문학 매체들의 지역 분산이나 지역 무크지들의 방향성은 서울에서 발행된 무크지들의 중심 가치-민중성, 현장성, 다양성 등과도 넓은 의미에서 다르지 않다. 그것은 ‘문학성의 민주주의’, ‘다른 문학의 가능성’, ‘복수의 문학성’의 요청인 것이다.10)

이 글이 『마산문화』에 주목한 이유는, 1970년대 중반부터 개진되어 1980년대 이르러 본격화된 문화변동의 양상과 문화운동의 성과들을 구체

---

2000년 기준, 전체 간행된 문학지 178종 가운데 지방에서 발행된 것은 45종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간행된 문학잡지의 비율은 77%이다(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8).

9) 줄고, 「1980년대 무크지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제37호, 한국시학회, 2013.8, 97쪽.

아래는 당대 지역무크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삶의 문화』(대전)와 『地平』(부산)의 발간사이다.

“문학의 민주화가 갖는 일차적 의미는 그것의 창작 및 향수, 계층의 보편화, 즉 민중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문학의 신비화에 대한 거부와 함께 그것이 전문 기능인의 장인적 전유물이 되거나 소수 지식인 및 학자들의 안가한 소일거리가 되는 것을 배격한다.”(『삶의 문화』 5집)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헌태도와 삶의 방식을 분명히 하여 지방문학으로서 한국문학, 한국 민족문학으로서 세계문학이라는 관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의 정립은 i)중앙/지방, 서울/지방에 의한 한국문학 이해태도 ii)순수/참여의 이원론적 경직성 iii)삶의 편향성 등에 대한 극복의지와 극복행위가 그 구체적인 기반이 된다”(『地平』 2집).

10) 위의 글, 86~95쪽을 참조할 것.

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크지로 수렴된 이 시기의 시대정신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이다. 무크지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지역성’<sup>11)</sup>이며 실제로 지역에서 발행된 최초의 무크지라는 점, 그리고 매체가 당대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 운동의 실천들을 수렴하고 매개하는 구체적 역할들을 수행하였다는 점, 아울러 이러한 운동의 실천성을 위해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들을 포함한 종합무크지라는 점<sup>12)</sup> 등을 고려하여 『마산문화』를 무크지시대의 성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검토하였다.

## 2. 서울·마산의 상생 네트워크와 지역 운동의 기반 만들기

『창비』, 『문지』 등의 폐간이 무크지 출현의 결정적인 인과적 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무크지이자 이후 간행된 무크지들의 발행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실천문학』이 기존 잡지들의 폐간 1년 전에 이미 창간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점, 이는 이전의 잡지들과 다른 형식/내용의 간행물이 요청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간행된 무크지들의 내용

- 
- 11) 지역무크지들이 중요하게 표방했던 서울중심주의 타파-문화의 지방주의는 당대(무크)의 핵심 가치인 민중성이나 현장/현실성, 그리고 실천성과 긴밀하게 연동된 것으로서 무크지시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지역성’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운동들의 연대와 실천의 중요한 계기로서 문학매체가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이전 시대의 엘리트/이론 중심의 추상적 논의를 지양(止揚)하고자 하는 문화주체들의 핵심 가치인 셈이다.
- 12) 문학잡지가 다양한 성격의 글을 함께 수록한 것은 7,80년대 문학이 기본적으로 운동적 흐름 속에, 혹은 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웅변해준다. 복간된 『창비』의 서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학계간지가 인문사회과학 여러 분야의 논의를 수용하는 것도, 무슨 호사취미나 구색맞추기가 아니다. 문학 본래의 변증법적 성격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책머리에』, 『창작과비평』, 1988.3, 3쪽).

이나 지향으로 볼 때, 신군부의 폭압에 의해 초래된 이 뜻밖의 상황을 새로운 운동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의식과 역량들이 이미 그 시대 속에 잠복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982년 12월에 간행된 『마산문화』 역시, 변화된 시대에 응전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주체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소집되거나 조직된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된 존재들이었다. 그것의 첫 출발은 ‘재경마산학우회’였다.

재경마산학우회가 발족된 것은 1965년이었고 그것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경남도청 유치의 건이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회활동을 위해 단체 결성 논의가 있던 중이었는데, 경남도청 이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우회 발족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었다. 이듬해 1월 마산시청회의실에서 재경마산학우회 임원들이 참여한 시정좌담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마산을 오가며 학우회 활동이 진행된다. 여느 학우회처럼 당시 재경마산학우회의 주된 활동은 음악회, 미술전, 시화전, 초청강연회, 체육대회 등의 친목활동과 지역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설명회, 그리고 지역 교도소 방문 등이었다.<sup>13)</sup>

이 무렵 한국사회는 1969년 3선개헌 저지투쟁,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 1972년 10월 유신, 1974년 봄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한 유신반대투쟁 등이 이어지면서 변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특히 전태일의 죽음은 그때까지 “추상적 대의에 입각하여 전개되던 학생운동을 일거에 민중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전환시킨”<sup>14)</sup> 중요한 계기였다. 긴급조치 발동으로 집단행동이 불법화되어 표면적으로는 운동의 활력이 약해졌

13) 재경마산학우회 결성이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은 재경마산학우회지 『南都』의 ‘연혁’, 박철규의 『부마민주항쟁과 학생운동』(『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2003), <경남도민일보>(2001.3.13) 등을 참조할 것.

14) 김상봉,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 서중석 외,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89쪽.

지만,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민중 속으로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합류하게 된다는 점에서, 70년대 후반기는 중요한 시기였다. 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과 종교계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대하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것이었다.

재경마산학우회의 성격이 변화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학생운동권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그동안 지역출신 엘리트들의 친목모임 성격을 띠고 있던 재경마산학우회는 1974년 4월 고려대 이념서클인 ‘청년문제연구회’에서 활동하던 한철수(72학번)가 10대 회장을 맡으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당시 한철수 주위에는 서울대 이념서클인 ‘한국사회연구회’에서 활동하던 주대환, 서익진, 감정기, 그리고 김진식 등과 재경마산학우회보 『南都』 창간호에 편집을 맡은 연세대 박진해(국문), 그리고 이후 운동권에 투신하게 되는 설훈(고려대), 황성권(외국어대) 등이 있었다. 이후 재경마산학우회는 학생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던 이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이전과 달리 현실참여적 성격의 모임으로 변화한다. 학우회 집행부는 재경학우회 회지 『南都』(1975.2)를 창간하여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지역 마산에서 강만길, 한완상 교수 등의 초청학술강연회와 재경학우회 소속 회원들의 학술발표의 장을 지속적으로 갖음으로써 지역의 의식을 깨우는 작업을 본격화한다.<sup>15)</sup> 이러한 학우회의 공식적인 활동들은 서울과 지역을 매개함으로써 침체해 있던 마산을 각성시키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보다 중대한 영향은 재경학우회의 비공식적인 스터디 모임에

15) 재경마산학우회의 많은 회원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엘리트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집행부는 박정희 체제 이후 침체한 마산지역의 시민/민주 의식의 고취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대학운동권 진영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현장과 민중을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재경학우회의 진보그룹들이 지역 마산에서 여러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 되었다. 마산 지역은 3·15의 도시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고 이는 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는데 중요한 의식적 자양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남도』 창간호가 발행되고 서익진이 회장을 맡은 이후(1975)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는”<sup>16)</sup> 소모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 모임이 결성된다.<sup>17)</sup> 이들은 학기 중에는 서울에서, 방학 때는 마산에서 공부 모임을 갖고 그 결과물을 『南都』 등에 발표하였으며, 1976년에는 지역을 책임질 경남대 후배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운동 역량을 조성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sup>18)</sup> 이 소모임에 참여한 학생들<sup>19)</sup>이 중심이 되어 1977년 하반기에 경남대의 첫 이념서클인 <사회과학연구회>가 결성되고, 이들은 훗날 10·18마산민주항쟁을 포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재경학우회와 함께 공부 모임에 참여한 경남대학생들은 <경남양서협동보급회-집현전> 활동을 통과하면서 학내외 종교계, 야학과 노동현장에 접속함으

16) 박진해, 「긴 역사에 대한 낙관론」,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불휘미디어, 2011, 195쪽.  
 17) 이 모임의 초창기 회원은 한철수, 주대환, 황성권, 김진식, 서익진, 박진해, 김종철 등이었고 이후 30명에 가까운 모임으로 확대된다. 장동훈, 김영조, 김상진(이상 고려대), 송정환, 허원, 차양호, 이호철, 신권철, 신종신, 오진환, 오영보, 이명희, 박정좌, 김준(이상 서울대), 우기동, 이문봉(이상 성균관대), 배기룡, 변효순(이상 연세대), 정혜란, 송은희, 김에립, 심경희, 이민진(이상 이화여대)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에서 전개되는 경남양서협동보급회 집현전, 부마민주항쟁, 『마산문화』 발행 등에 관여한다.  
 이외에 재경마산학우회가 지역에 끼친 영향 중 하나는 1975년 <마산학생연구회>의 결성이었다. 김진식·하영화(서울대), 이재용(고려대), 최낙경(성균관대), 이나경(이화여대), 주정숙(경북대), 이윤도·전재용(경남대) 등이 참여하여 사회성이 강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강한 자극이 되어, 이듬해(1976)에는 경남대 극예술연구회, 1977년에는 가톨릭여성회관의 지원을 받아 공장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씨극회 창립으로 이어진다[박진해의 「경남양서보급회를 돌아보다」(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양서협동조합운동』, 대성, 2011, 61~64쪽)와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중 이윤도·신용수 등의 인터뷰].  
 18) 한철수는 한 인터뷰에서 대학 재학 중에 참여한 ‘청년문제연구회’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지방대학에 이념서클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경남대 후배들과 소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밝힌바 있다(『부마민주항쟁 증언집』, 784쪽).  
 19) 이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정성기, 이윤도, 최청호, 윤기수, 박재석, 이신모, 박성원, 한석태(1기), 박인준, 강정근, 박성원, 제부원, 김용현(2기) 등이었다.

로써 지역사회의 운동 역량을 결집·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경마산학우회 회보 『남도』를 살펴보면, 그 구성은 축사/격려사, 특집, 편집위원칼럼, 타지방 학우란, 회원논단, 번역논문, 특별기고, 좌담, 시론(時論), <南都文苑>(시·소설·수필·공트·번역·독후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례적인 글이나 신변잡기를 적은 회원들의 에세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문학적 감성이 투영된 글들은 그 무렵 비슷한 종류의 회지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편집진이나 ‘회원논단’에 수록된 일부 회원들의 글은 상당한 수준의 식견을 갖춘 것들이었다.

다음은 4호까지 간행된 『남도』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글의 목록이다.

	특집/ 권두논문	편집위원 칼럼/시론	회원논단	기타
1호 (197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특집: 후진국 민족주의&gt;</li> <li>후진국 민족주의 개념(편집부)</li> <li>경제적 측면에서 본 후진국 민족주의(서울대 서익진)</li> <li>후진국 민족주의에 대한 정치적 고찰(건국대 조봉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5의거 기념탑(연세대 박진해)</li> <li>&lt;時論&gt;</li> <li>대학생과 사명(한양대 안장근)</li> <li>민권의 역사적 고찰과 현실(서강대 이봉조)</li> <li>한국사관에 대한 우리의 자성(서강대 임창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극과 관객(고려대 김성수)</li> <li>대학의 개혁(연세대 남원철)</li> <li>우리나라의 경제성과 외채부담(중앙대 강영재)</li> <li>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사업학(서울대 김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두시(이은상)</li> <li>특별기고(시/이선관)</li> <li>특별좌담(학우회의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한다: 박진해·조남규·차철환·구미화·김치욱·한철수·전영아·김진식)</li> </ul>
2호 (197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권두논문&gt;</li> <li>지식인과 행동(중앙일보기자 설동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교문학의 한국적 적용(연세대 박진해)</li> <li>19세기 러시아 작가와 사회상(고려대 이재용)</li> <li>역사의 이해와 객관성(서울대 박결순)</li> <li>학문일반에 대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구분에 관한 문제(서울대 하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기고(시/이선관)</li> </ul>
3호 (197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권두논문&gt;</li> <li>인간화와 문제의식(서울대 서익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과 지성(고려대 김종철)</li> <li>청년문화로서의 대학탈출(연세대 박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기고(후배에게 주는 글/경남매일편집국장 이광석)</li> <li>특별기고(시/이선관)</li> </ul>

4호 (1978.3)	<특집> ▪ 포토칼럼: 인생시 장의 하루(연세대 정 연구/이대 허경)	▪ 연극의 본질(서울대 하영화) ▪ 한국경제발전과 인 금구조에 관한 연구(경 남대 정성기) ▪ 인간화를 위한 시론 (고려대 김종철) ▪ (번역논문) 아시아 사회경제론 비판의 방 법론적 반성(서울대 송 정환)	▪ 특별기고(시/이선 관)
----------------	---	---	-------------------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76년부터 재경학우회는 전체 회원들(재적 1300여명)의 친목을 도모하는 공식적인 전체 모임과 이념적 성향을 띤 비공식적 소모임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는데, 위 표에 정리된 기획논문이나 시론들은 소모임의 산물로서 상당한 공부가 축적된, 전문적 식견을 갖춘 것들로 판단된다. 『남도』 창간호의 편집책임을 맡은바 있고 이후 양서협동조합의 <집현보>, 그리고 『마산문화』(1,2호)를 꾸린 박진해에 따르면<sup>20)</sup>, 76년부터 시작된 공부 모임의 성과들은 스터디에 참여한 회원 중 한둘이 맡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sup>21)</sup> 서익진, 하영화, 박진해, 감정기, 김종철 등 위의 필진 중 다수가 이 모임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76년부터 재경학우회 공부모임에 참여하고 77년 하반기에 경남대 최초의 이념서클인 <사회과학연구회> 결성을 주도한 정성기의 글이 재경학우회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호(1978)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 아울러 강한 사회적 비판의식을 보인 지역시인 이선관의 시가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특별기고 형식으로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남도』를 창간간행한 재경마산학우회는 소모임을 통해 서울과 지역의

20) 박진해 인터뷰: 2014.8.13(수),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21) 스터디 모임의 공부 결과를 한 두 사람이 정리하고 함께 논의하여 수정·발표하는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남도』에서 『마산문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마산문화』의 편집 책임을 맡았던 박진해나 박영주가 공히 이 무크지에 수록된 글들을 ‘공동집필’이나 ‘집체창작’의 관점에서 설명하려 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연계고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운동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지역사회에서 개선되는 다양한 문화운동의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 폭압적인 유신체제 속에 진행된 이와 같은 서울-지역의 상생적인 움직임은 80년을 전후로 하여 펼쳐진 마산 지역의 문화운동, 나아가 민주화운동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경남양서보급회(집현전)와 지역 운동 역량의 대중적 확산

양서협동조합(이하 양협)은 1978년 4월 5일 부산에서 처음 결성된 이후 마산, 대구, 서울, 울산, 광주, 수원 등으로 전파 확산되었다가 권력의 탄압에 의해 80년대 초반 해산된 소비자협동조합이다. 양서(良書) 유통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이지만 일반적인 소비자협동조합과 달리 경제적 목적보다는 양서 보급을 통한 문화운동체 육성의 성격을 띤 양협은 지역차는 있지만 양서를 매개로 하여 조합원 교육과 강연회, 그리고 내부 소모임 등을 병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운동체 조직이다.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협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격은 유신체제하에서 단절되어 있던 민주화운동가들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sup>22)</sup>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출옥한 후, 이듬해 7월 부산으로 이주, 당시 부산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김광일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주요 거점인 중부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김형기의 착안으로 시작된 부산양서협동조합<sup>23)</sup>은 지역의 기독교청년들과 서울지역 유학생 그룹, 지역의 명망가와 시

22) 차성환,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기억과 전망』 8권, 2004·가을, 68~69쪽.

23) 부산양협과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진모에 관해서는 차성환의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1·2」(『기억과 전망』 8/9권, 2004·가을/겨울)과 김형기의 「양서협동조합 운동

민들이 참여한 조직이었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온건한” 조직체로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족한 부산양협은 1년 6개월만에 5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릴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기본적으로 협동서점 운영을 통한 양서 보급을 비롯하여 분야별 소그룹 스터디 모임, 협동도서실 운영, 저자 초청 및 대중강연회, 농촌활동 등을 전개한 부산양협은 지역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양협의 전국적 확산에 중요한 전범이 되었다.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결성된, 마산을 기반으로 한 ‘경남양서보급화 집현전’(이하 집현전)는 뜻밖의 인물에 의해 처음 제안된다. 마산고를 졸업한 후 한국철강(마산 소재)에서 수년간 철강노동자로 근무하던 이광두는 직장을 사직한 뒤 서점 개업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부산양협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곳을 직접 방문 견학한 뒤, 고등학교 1년 후배이자 마산 완월성당을 함께 다닌 서울의 김진식(서울대4년 재학)을 1978년 6월경에 찾아간다. 이광두의 제안에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김진식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던 박진해가 의기투합하였고, 이들은 서울의 한철수, 주대환, 황성권, 하영화, 마산의 이윤도, 정성기 등과 협의한 후, 재경마산학우회 선후배와 학우회의 학습소모임, 마산의 연극/탈춤 모임, 그리고 완월성당과 지인들을 규합하여 1978년 8월12일 창립총회를 갖고 운영방침과 조직 구성을 결정한다.<sup>24)</sup> ‘집현전’은 매월 1회

을 회고한다./김희옥의 「부산양서조합」(『양서협동조합운동』,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대성, 2011) 등을 참고할 것.

24) 집현전의 성격은 <집현보> 창간호에 실린 창간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시대에 당대 지성의 집결처로서의 집현전이 있었다. (...) 이들은 새 왕조를 이끌어 갈 이념과 문화는 우리 고유의 전통에 뿌리박은 독자적인 것이어야 함을 절감하고 이의 창조에 모든 힘을 기울였거니와 그 성과는 강한 민족적 성향을 띠면서 광범한 민중 지향적인 훈민정음 창제로 대표되어 나타났다. (...)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형편없는 저임금 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일방 이른바 호화맨션 아파트와 유흥집 객업소의 현저한 등장을 목격한다. 소비지향과 물질우선 감각 위주의 풍조 속에서 이미 이 고장의 슬기로운 전통유산은 발붙일 곳을 잃었다. (...) 그러나 더 이상 뿌

회보 <집현보(集賢報)><sup>25)</sup>를 발행하였는데, 첫 회보에 수록된 회원 명단은 무려 128명이었다.<sup>26)</sup> 부산양협과 달리 집현전은 재원 마련이 순조롭지 않은 대신, 회원들이 소장하던 책들을 기탁하여 대출도서로 활용하였다. 주요 도서 기탁자들<sup>27)</sup>은 대체로 집현전의 핵심 회원이었고, 이전부터 재경학우회와 관련하여 소규모 공부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도서 대출 업무 이외에 집현전에서 주력했던 사업은 일반교양강좌와 여러 형태의 공부 모임이었으며, 집현전에 참여한 회원들은 마산 출신 대학생들, 경남대 학생, 지역의 각급학교 교사, 회사원, 세무서직원과 공무원, 그리고 고등학생 등 다양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젊은 층이 많았다.

<집현보>의 양서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도서들은 다음과 같다.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이데올로기의 정체』(이규호), 『불확실성의 시대』(갈브레드), 『소유냐 삶이냐』(프롬), 『사람됨의 뜻』(이규호), 『지식인과 허위의식』(한완상), 『국제정치이론』(C.E 블랙), 『후진국 경제론』(조용범), 『민족 경제론』(박현채), 『근대화이념과 한국경제』(임종철), 『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유인호), 『한국근대농업사 연구』(김용성), 『우주와 역사』(엘리아데), 『한국근대사론』(안병직), 『민족과 역사』(이기백), 『한국의 역사인식』(이우성·강만길), 『조선 지배층 연구』(김영모), 『한국가면극의 미학』(조동일), 『문학과

리를 뿔힌 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고장의 부끄러운 전락을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비판적 지성의 제고를 통해 상업적이고 반민중적인 문화를 견제하고 추방하겠다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 25) <집현보>는 18×24cm 정도 크기로 모두 네 번 발행되었다. 이광두가 발행인을, 박진해가 편집인을 맡은 회보는 손으로 직접 쓴 형태의 팜플렛으로서 12~24면으로 발행되었다. 매월 1회 간행을 목적으로 하여 1978.8~10월까지 3호를, 최종 4호는 이듬해 1월에 발행되었다.
- 26) 2호(1978.9)에 소개된 신입회원은 42명, 3호(1978.10)에는 52명, 4호(1979.1) 20명 등, 준회원인 고등학생(마산고/여고) 16명을 포함하여 4호까지 등재된 회원은 모두 242명이다.
- 27) 주요 도서기탁자는 박진해, 주대환, 김진식, 한철수, 김종철, 정성기, 하영화, 이윤도, 이광두, 이흥정, 백승태, 이광두, 한옥진, 윤성도, 주정숙, 우기동 등이었다.

예술의 사회사』(하우저), 『한국현대회화사』(김윤수), 『일차원적 인간』(마르쿠제), 『하늘을 우러러』(김동길), 『일하는 아이들』(이오덕), 『민속종교와 한국문화』(유동식), 『한국 노동문제의 구조』(김윤환 외), 『교육과 의식화』(프리에), 『피억압자에 대한 교육학』(프리에), 『객지』(황석영), 『아홉켠레 구두로 남은 사내』(윤홍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제3병동』(김정환), 『광장』(최인훈), 『거대한 뿌리』(김수영), 『농무』(신경림), 『나』(강은교 외), 『자기앞의 생』(아자르), 『제8요일』(플라스코)

양서선정위원회가 추천한 도서들은 정치·사회·경제·역사·예술·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로서, 당시 다른 양협에서도 많이 읽혔던 도서들이었다. 그 목록을 살펴보면 사회적 현실을 사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도서들로서, 앞서 살폈던 재경마산학우회 회보 『남도』와 다음 장에서 살필 무크지 『마산문화』에 중보거론되는 책들이 적지 않다. 이는 책을 기탁한 집현전의 핵심 회원들이 재경학우회나 『마산문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경마산학우회 일부 회원들에게서 시작된 소규모 공부 모임이 지역 속에 창구를 만들고 그것이 좀더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로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신 체제로 인해 걸으려는 침체되었던 사회 변혁의 움직임은 의식을 일깨우는 다양한 계몽프로그램과 인적 네트워크의 확산 과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동력을 형성해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경학우회와 지역대학생들이 함께 한 소규모 공부 모임이 양서보급회의 소모임 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종교계와 노동계, 일반 시민들 속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지역의 시민의식과 민주 운동 역량이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집현보>에 수록된 주요 기사 내용을 통해 당시 집현전 집행부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요 기사	기타
1호	<서평> 민족문화와 세계문학(백낙청) <양서추천목록>	창간사, 발기문, 경남양서보급회 회칙, 회원명단, 회보 마크해설
2호	<독후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정성기) 나세르와 아랍혁명(김종철) <도서안내> 민속종교와 한국문화/국제정치이론/전환시대의 논리/후진국 경제론/제3병동/피억압자에 대한 교육학/한국현대회화사/기대한 뿌리/민족과 역사 <연재마산문화사1> 마산의 개항(박진해)	권두언, 신입회원 명단 기탁 도서목록
3호	<서평>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정성기)/제8요일(이홍점) <한국근대사관계참고문헌> 조선후기 경제의 변화/실학사상/민중문화의 성장/민중의 항거와 동학혁명/독립협회와 애국계몽운동/의병의 항일투쟁 <연재마산문화사2> 일제 때의 항일운동(박진해)	신입회원 명단, 기탁도서 목록 대출도서 현황
4호	<논단> 에리히 프롬(김종철)/사회철학에 관하여(우기동) <연재마산문화사3> 마산의 지신밟기(박진해) <양서소개> 한국노동문제의 구조/광장/이테올로기의 정체/교육과 의식화/불확실성의 시대/조선 지배층 연구	신입회원 명단, 도서대출 상황 기탁 도서, 구입도서 목록

<집현보> 창간호는 회원들에게 양서목록을 추천하는 데 그쳤지만, 2호부터는 양서에 대한 집중적인 서평과 독후감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마산문화사’ 연재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환기시켰다. 3호에는 한국근대사와 관련한 주제별 참고문헌 목록을 제공하고, 4호에서는 특정 작가와 주제에 관한 집중적인 논단 기사를 실고 있다. ‘에리히 프롬’이나 ‘사회철학’에 관한 집중논단은 건강한 시민과 지역공동체 살리기를 도모한 집현전의 의도를 잘 드러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집현보>에 수록된 서평의 대상은 주로 정치·사회·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들로서, 집현전의 사회과학세미나 모임에서 다룬 책들로 판단된다. 이들 서평 대상이나 기사 내용은 부분적으로 『남도』의 내용과 겹치며, 필진·박진해, 김종철, 정성기, 이홍점, 우기동 등-역시 『남도』 창간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지속된 소모임에 참여한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경남양서조합 운동이 재경학우회에서 시작된 소모임의 연속적 계승이자 확산의 성

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집현전은 심각한 재정난과 창립에 주요 역할을 했던 박진해(해군 장교 입대-진해) 등의 이탈로 1979년 7월 자진해산한다.

#### 4. 『마산문화』와 지역, 그리고 ‘작은 언론’

1982년 12월에 창간된 『마산문화』<sup>28)</sup>는 지방에서 발행된 첫 무크지이다. 『실천문학』(1982.3/고은·박태순), 『우리 세대의 문학』(1982.5/이성복·이인성·정과리)에 이어 세 번째로 간행된 『마산문화』는 마산의 소극장 멋돌사랑과 도서출판 멋돌의 대표인 김종석을 발행인으로, 『남도』와 <집현보> 편집을 맡았던 박진해를 편집인으로 하여 창간된다. 『마산문화』의 편집 책임을 맡았던 박진해(필명 박명윤)에 따르면<sup>29)</sup>, 당시 지역의 진보적 운동 역량의 제고를 위해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고 ‘대학서림’<sup>30)</sup>을 중심으로 팜플렛 발간을 기획하고 있던 차에 무크지 형태로 발간된 『실천문학』을 보고 『마산문화』 창간을 기획하게 된다. 『마산문화』는 몇 명의 편집동

28) 4권까지 발행된 『마산문화』는 국판(15×22cm)형의 크기로 1500부를 인쇄(창간호는 3000부-재판 발행)하였고 거의 전량 유가판매하였다. 1권은 도서출판 멋돌(발행인 김종석), 2,3권은 청운(발행인 서익진), 4권은 마산문화사(발행인 박영주)에서 간행되었고, 제작비용은 도서 판매 수입으로 거의 회수되었으며 편집진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29) 박진해 인터뷰. (좌담) 김정환·박명윤(본명 박진해)·이은봉·하영권, 「80년대와 지방 문화운동」, 『실천문학』 5호, 1984.10.

30) 마산의 ‘대학서림’은 재경마산학우회와 집현전 활동에 깊이 관여하였던 서익진이 대학을 졸업한 후 마산에 정착하여 꾸렸던 서점이다. 당시 ‘대학서림’을 운영한 서익진은 도서 구입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의 여러 도서관과 연결하여 (학위)논문 등의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인문사회과학계통의 원서복사판을 구비·판매함으로써 서점을 지역의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게 만들었다(『마산문화』 창간호 「문화탐방」 기사 참조). 서익진은 이후 ‘도서출판 청운’을 등록하여 『마산문화』 2,3권을 발행하였고, ‘대학서림’은 『마산문화』 3,4권의 편집진으로 참여한 이태수가 1984년 인수한다.

인 체제로 발간된 것이라기보다 7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스티디 그룹, 그리고 농촌이나 노동 현장과 다양하게 접촉되어 있던 인적 네트워크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원고가 수합되고 선택·결정되는 과정을 거쳐 간행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제작 과정으로 인해 당시 『마산문화』의 편집진(박진해, 박영주)은 여기에 수록된 적지 않은 원고들이 ‘공동창작’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취재 기사나 논문 형태의 글은 소규모 스티디 모임의 소산으로서 한 두 사람이 원고를 쓰고 함께 고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일부 문학 작품조차도 필자의 동의하에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sup>31)</sup>

무크지 자체가 문화게릴라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80년대 무크지의 성격을 단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뚜렷한 전체적 특징 중의 하나는 ‘분권으로서의 탈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과 열린 문학을 추구하거나 민중과 현장을 지향하는 무크지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갇힌 문화/문학에 대한 타개를 선언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간행된 거의 모든 무크지들이 문화의 서울집중을 반대하고 ‘지역문화’ 건설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으며, 『마산문화』 역시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 과제로 강조하였다.

우리는 한국문화의 서울 집중현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모든 문화시설과 문화기관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인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다. (...) 우리는 마산시민의 독자적, ‘지방자치적’ 문화의 형성을 주장한다. 마산시민의 생활과 정서가 이러한 새 마산문화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하

31) 이러한 원고 정리 형태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마산문화』 2권에 수록된 3편의 ‘특집’을 들 수 있는데, 원래 이 글은 안운봉(경남매일 논설위원)과 여진(마산일보 편집국장)에게 청탁한 것이었지만 글의 함량이 미흡하여 서익진, 박명윤(본명 박진해), 유종영(본명 주대환)이 나누어 대폭 수정해서 수록하게 된다. 『마산문화』에는 이와 관련된 경위가 생략된 채, 두 사람을 자료 제공자로 밝히고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마산문화』 2권, 「독자에게」를 참조할 것).

며, 그 문화는 시민의 힘겨운 삶에 활력과 위안을 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산 문화인과 그 관계자들의 어떠한 종류의 문화적 열등감이나 소외감도 타기되어야 하며, 새로운 의욕과 작품이 진작되어야 한다.<sup>32)</sup>

그러므로 시민대중의 정신적 양식의 창고에 한 알의 곡식도 보태지 못하면서 문인, 예술가연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도취적인 행동과 태도들은 우리가 맨 먼저, 가장 단호하게 배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있어 왔던 어떤 종류의 지식인 중심의 문화운동도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sup>33)</sup>

창간의 첫머리에서 주장한 것은 ‘지방자치적’ 문화의 형성이다. 이는 ‘지방주의’나 ‘자연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심주의로 인해 지역이 겪는 열등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중심이 되는 건강한 문화의 창건을 뜻한다. 이는 현장과 민중을 역사의 주역으로 인식한 당대적 세계관의 일환으로서, 시대가 간절히 요청했던 진정한 민주사회 실현 열망의 현실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작고 초라하고 버려진 민중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각 지역들이 독자성과 자부심을 갖고 저마다의 현장을 귀중한 생의 토양으로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중과 현실, 현장에 대한 소환을 지역을 통해 수렴하고자 한 셈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성문화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배제가 개진된 것이다. 문협이나 예총으로 상징되는 기성문화인들에 대한 부정은 그들의 문학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앙콤플렉스에 대한 거부였으며, 이는 70년대 후반부터 거론되던 제3세계문화의 건강함이나 중심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

32) 「책을 내면서」, 『마산문화』 1권, 맺돌, 1982.12, 4쪽.

33) 「독자에게」, 『마산문화』 2권, 1983.10, 청운, 4쪽.

문화의 가능성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고, 아울러 계승해야 할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것이 서울보다 지역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와 지역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마산문화』의 편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수된 원칙 중의 하나였다. 실제로 간행된 네 권의 『마산문화』에서 청탁 받은 기성시인은 광주의 문병란과 마산의 토박이 시인 정진업, 이선관 정도였으며, 대부분은 지역에서 동인활동을 하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논의 과정을 거쳐 수록하였다.<sup>34)</sup>

아래의 표는 『마산문화』에 수록된 원고 목록이다.

	특집	문학	논문/서평
1권 (1982.12) 겨울 언 덕에 서서 (169쪽)	<특집> 마산문화의 현황 ·마산의 동신제와 지신 밭기(박진해) ·마산 연극의 흐름(박영주) ·마산의 청년문화 동인 활동(이제업) (문화탐방) 소극장 밭들 사랑과 대학서림을 찾아서(강영혜)	<시> ·술 외 2편(최명학) ·신마산 땀거리 외 3편(이제업) ·그렇게 우리, 가포본동에서 외 3편(조성래) <소설> ·수출자유지역의 하루(최순임/고경엽) <평론> 이선관시론(박진해)	<논문> 마산지역 경제의 실태와 전망(이우태) <사회과학 주요개념의 이해> 민족민주주의·민족해방운동(서익진) <역사연구> ·알제리 민족해방전쟁(김종철) ·한국근대사 연구자료(편집부) <서평> ·철학의 쉽고 올바른 이해-務台理作 『철학개론』(고창규) ·해방전후사를 보는 눈-서대숙 외 ·『한국현대사의 제조명』(제부원) <시사/뉴스위크> 나카라구아에서의 비밀전쟁

34) 『마산문화』의 편집을 맡았던 박진해에 따르면, 당시 지역에서 활동하던 원로·중견 문인들은 『마산문화』의 이러한 편향에 대해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젊은 층은 열광적으로 호응했다고 한다. 『마산문화』 3권 「마산의 새로운 문학운동을 생각한다」는 평론에서 박영주는 『마산문화』의 가장 큰 영향으로 지역의 문청들을 “기성문인들의 독점적 영향권으로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의 문학세계를 넓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한바 있다(89쪽).

<p>2권 (1983.10) 다시 수풀을 헤치며 (260쪽)</p>	<p>&lt;특집&gt; 한국근대사 속의 마산 ·제국주의의 침략과 마산 민중의 저항(서익진) ·일제하 마산의 항일민족운동(박명윤/박진해) ·3·15마산의거의 배경과 경과(유종영/주대환)  &lt;특별기고&gt; 마산지방의 연혁과 명승고적(김종원)</p>	<p>&lt;시&gt; ·비석 외 6편 (故 정진업) ·1982년의 가을 외 2편(문병관) ·기자 외 2편(김종석) ·철새보호구역(이종찬) ·어둠에 서서(정완희) ·만날노래(장시500행/최명학) &lt;평설&gt; 정진업선생의 문학과 그 배경(편집부) &lt;소설&gt; 낮게 날으는 작은 새(최명학) &lt;수필&gt; 농업생산활동의 문제들을 생각한다(천규석) &lt;해외문학 소개&gt; 카멜루오T .탈리랜드의 영혼 구하기(몽고 배티/신권철역) ·남아공화국-서두르세 검은 자들이여(작크 알바레즈 페레이르/김진식 역)</p>	<p>&lt;논문&gt; ·형평운동의 형성과 전개(김남규)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속의 마산수출자유지역(재경마산학우회)</p>
<p>3권 (1984.12) 전진을 위한 만남 (164쪽)</p>	<p>&lt;이 땅을 우리 손으로&gt; ·전(前) 신기농민회 회원들과의 대화(편집부) ·삼성 라이에타 노조의 외로운 몸부림(편집부) ·관방마을 농민들의 수세현물 납부 투쟁(농필이패)</p>	<p>&lt;마당극 대본&gt; 마당극 농필이(농필이패) &lt;소설&gt; 떠도는 땅(최명학) &lt;시&gt; ·배추꽃 외 1편(유동열) ·남쪽나라 외 1편(정완희) ·공단지역에 내리는 눈 외 1편(이재업) &lt;평론&gt; 마산의 새로운 문학운동을 생각한다(박영주) &lt;수필&gt;살아가는 이야기&gt; ·어디로 가야 하나(김해자) ·제5문화권(윤재철)</p>	<p>&lt;논문&gt; ·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이호민/이태수) ·일본의 대한군사진출의 배경과 전망에 대하여(강진영/강정근) ·신채호 선생의 민족주의 사상(김병화/?) &lt;책소개&gt; ·철학에세이, 철학의 기초이론(김영찬)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알기쉬운 오늘의 한국경제(서익진) &lt;시사/뉴스위크&gt; 마르크스에 도전하는 반란국</p>
<p>4권 (1985.12) 희망과 힘 (238쪽)</p>	<p>·췌통일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및 민주노조 수호 투쟁기(김일산/김영찬) ·진양군 피망고추 재배농의 집단 피해보상 투쟁(김영찬) ·마산 택시기사들의 노동 조합운동 사례(김진옥) ·10·18마산민중항쟁의</p>	<p>&lt;소설&gt; 파견근무(김원철/정정화) &lt;시&gt; ·마산 외(정규화) ·송년 외(유동열) ·텃빈 교향엔들 뭘 하나 외(정인은) ·동학, 4·19, 그리고 그리움 이어 외(김중우)</p>	<p>&lt;논문&gt;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막아내자(오민혁/강정근) ·농민은 질병 앞에 무방비상태다(조윤돌/한갑현)</p>

	전개과정(박영주)	·첫사랑 외(이소리/이종찬) <수필> 어느 농사꾼의 편지(윤정인)	
--	-----------	--	--

\* 이름 뒤의 굵은 글씨는 본명.

‘새 마산문화의 형성을 위한 부정기간행물’이라는 부제를 달고 4권까지 간행된 『마산문화』는 그 취지에 맞게 지역의 문화·역사·노동 현장을 알리는 작업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2권은 마산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3,4권은 지역 노동·농민 운동의 투쟁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마산문화』에 수록된 글들의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1984년 봄에 이루어진 전두환정권의 유화정책, 즉 ‘학원자율화조치’로 인해 운동권 진영의 장(場)이 커지면서 학생·노동·농민 운동이 크게 활성화된 시국상황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박영주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된 시국 상황을 좀더 적극적으로 책에 담아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민중적 관점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로 했다는 것이다.<sup>35)</sup>

총 네 권이 발행된 『마산문화』의 주요 필진은 재경마산학우회에서 활동하던 박진해, 서익진, 주대환, 김종철, 김진식, 이태수 등과 이후 지역에서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박영주, 김영찬 등이었는데, 특히 『마산문화』 3,4권의 경우 박영주와 김영찬을 비롯한 지역 인물들의 활동이 좀더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지역 운동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이는 『마산문화』 1,2권과 다른 3,4권의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노동·농민 운동 현장을 취재한 기사들은 내용상으로는 현장의 모습을 담아내고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공한 사례와 과정들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35) 『마산문화』의 변화 원인에 대해 박진해는 주요 편집진의 교체를 들었는데, 박진해, 서익진 등이 뒤로 물러나고 이들보다 몇 년 후배인 박영주, 김영찬, 이태수 등이 좀더 주도적으로 편집에 참여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박진해 인터뷰).

써 유사한 현장들의 운동성을 제고하고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산문화』가 단순히 어떤 정념을 담아내는 단순한 그릇으로서의 도구적 기능을 넘어 현실과 생산적으로 교호하는 변증법적 발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실 변혁에 역동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도는 관방마을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수세현물 납부 투쟁을 취재한 기사가 실린 3권에 함께 수록된 「마당극 대본-마당극 농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민운동의 성공적인 투쟁 사례를 마당극으로 극화한 이 글은 현실 반영을 통해 현실의 변혁을 추동하고자 한 현실주의 문학의 모범적 사례로 판단된다. 역사를 정리하고 이론을 소개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산문화』의 큰 흐름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3,4권의 편집에 참여했던 박영주는 『마산문화』가 부정기간행물로서의 ‘무크’를 넘어 대중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작은 언론’ 매체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했다고 밝힌바 있다.<sup>36)</sup> 이는 80년대 전반기 한국사회 전체의 운동역량의 제고 상황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자, 80년대 무크지의 한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산문화』에 수록된 문학작품은 대체로 역사의식과 민중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주로 마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삶의 현장을 노래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지역에서 동인활동을 한 이재업, 조성래, 해직 교사 출신의 유동열, 노동자출신 시인 이종찬, 정완희, 농민시인 김종우 등 운동 현장이나 지역과 연관된 시인들의 작품을 수록하였고, 문학평론은 지역출신의 시인 정진업과 이선관을 다룬 글, 그리고 지역의 젊은 문단을 조명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밝은 날일수록 소리나지 않게 울고 싶었다/남성도 지하도를 건너 어시장

<sup>36)</sup> 박영주 인터뷰, 2014.8.18(월).

선창가/아무리 세상 곳은 날에도 비 한번 쏟아지지 않아/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다/소금에 절은 목선 노랫가락/어시장 공동위판장 천정에 매달려 흔들  
 리고/피처럼 질척이며 밟히는 생활의 무게/갯바람 몰아치는 포장지에서 우  
 리는/낮게, 그리움에 젖어 들었다/비틀린 속까지 다 숨아내면서 피를 토했으  
 나/누구도 먼저 노래 부르지 않아/우리들 가슴앓이의 병/온몸 부딪치며 깨어  
 나는 파도만 바라보았다/꿈마저 젖은 밤바다에서/젖지않는 바람을 맞으며

- 이재업, 「船艙-1980년 10월」 전문<sup>37)</sup>

저녁부터 밤 늦도록/아랫층 공장 앞에서/웅성거리고 있는 아가씨와 아줌  
 마들/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다/사장은 며칠 전 밤에/가게를 몽땅 싣고 날  
 라 버렸다는데...../차가운 길바닥에서/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연말은  
 /말 한 번 붙일 수 없을 만큼/얼어붙어 있다/폐업해 버린 공장의 이층 검정  
 고시학원에서/국어강의를 한답시고 지껄이고 있는 난/자꾸만 그 사람들의  
 일이/마음에 걸린다/공장 다니며 공부하는 얼굴들 앞에서/어쩌면 노동이란  
 가난하거나 공부를 못하면 하게 되는/부끄럽고 천한 것이라고/은근히 얘기  
 해대는 페이지들을 팔고 있는/나는 풀이 죽는다/새해를 하루 앞둔 밤에

- 유동렬, 「送年」 전문<sup>38)</sup>

『마산문화』에 수록된 문학작품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위의 시편  
 들은 모두 어두운 당대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재업의 「선창」은 마산  
 의 구체적인 장소들을 호명하며 암울하고 억압적인 현실, 울분과 그리움  
 으로 가득한 민중들의 정서를 담아냄으로써 1980년 무렵의 시대적 분위  
 기를 그려낸다. 마산의 실제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그려진 이 시의 암담  
 한 정념은 지역의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정서적 밀착감과 연대감을 느끼  
 게 했을 것이다. 이 시가 취하고 있는 장소의 구체성과 암시된 화자의 내

37) 『마산문화』 1권, 52~53쪽.

38) 『마산문화』 4권, 마산문화사, 1985.12, 219~220쪽.

면은 『마산문화』에 수록된 다수의 작품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렬의 「송년」은 당대 민중을 둘러싼 엄혹한 자본의 현실을 화자의 성찰적인 내면을 통해 그려낸 작품이다. “폐업해 버린 공장” 위에 개설된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은 가난한 노동의 현실과 이를 자신의 것으로서 성찰하는 당대적 감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인 셈이다. 민중들의 삶의 현장과 현실,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려는 지성들의 성찰의 감수성은 『마산문화』의 문학작품들을 관통하는 주요 인자들이며, 노학(勞學)연대가 본격화되고 있던 당대의 분위기에 대한 문학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산문화』의 이러한 편집 방향은 수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2권부터 실리기 시작한 수필은 민중들의 애환과 그들이 처한 현실 상황을 진솔하게 그려내면서 국가와 자본의 본질을 담아낸다. 농업생산의 특수성과 농정의 기만성, 소수독점재벌과 우유가공업자의 이익 등을 우선하는 국가 정책의 문제 등이 농민이 쓴 수필을 통해 생생하게 형상화된다. 네 권에 각 한 편씩 수록된 소설은 모두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한 것으로서 가혹한 노동 조건과 기업의 기만적인 태도, 그리고 다양한 노사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공단이 몰려 있는 마산과 창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면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운동의 현실을 담아내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운동성을 제고하고 조직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던 『마산문화』의 편집방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마산문화』의 권별 특징들을 살핌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겨울 언덕에 서서’라는 제하를 달고 간행된 창간호에서 중요하게 다룬 기획은 지역 마산의 문화 현장이다.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지역의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세 개의 꼭지에 매우 소상하게 담아냄으로써 『마산문화』가 지향하는 지역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겨울 언덕에 서서’라는 부제가 상징하는 암담한 시대, 이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역과 지역의 문화에서 찾고 있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1권이 지역문화의 현재에 대한 조명이라고 한다면, 2권은 지역의 역사에 대한 고찰, 그 중에서도 저항의 근대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마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역사적 사실들을 복원함으로써 운동의 현재적 동력을 재건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기억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이 기획 속에 누락된 10·18마산 민주항쟁(1979)에 관한 기록은 4권에 수록된다. 1984년 12월에 간행된 3,4권에는 1,2권과 달리 노동·농민 운동 현장에 관한 소식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그것은 『마산문화』의 편집진이 도모하고자 한 변혁운동 역량 제고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 중의 하나일 것이다. 3,4권이 ‘진진을 위한 만남’, ‘희망과 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은 암담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연대와 투쟁 속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3권에 수록된 「신기농민회 회원들과의 대화」 말미에 덧붙인 다음과 같은 내용은 글을 실은 편집진, 나아가 80년대 초반의 민주운동 세력의 분명한 지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신기농민회는 지식인과 민중이 만나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올바른 삶과 발전에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

39) 마산 지역은 4월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3·15의거가 일어난 곳이다. 1960년 4월혁명의 도화선은 대구의 2·28의거였지만 이를 중대한 혁명의 계기로 전환시킨 곳은 마산이었다. 학생들이 벌였던 대구의 2·28과 달리 마산에서는 학생을 비롯해 시민과 노동자, 도시빈민 등이 대거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폭력적인 시위로 발전하였고 여기에 경찰이 무력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저항을 초래하였다. 3월 15일과 4월 11~13일 두 차례의 시위로 인해 4월혁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 김주열을 비롯한 1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이승만정권을 붕괴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이은진의 「3·15마산의거의 지역적 기원과 전개」(『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정근식·이호룡 편, 선인, 2010, 117~180쪽)와 김은경의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원으로서 4월혁명 재평가」(『다시보는 한국 민주화운동』, 선인, 2010, 73~98쪽)를 참조할 것].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과 승리의 기억은 마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10·18마산항쟁(부마항쟁)을 촉발하는 저항의식의 자산이 된다.

인한 흔하지 않은, 산 증인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나가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과연 농민의 운명은 어떻게 하여 바꿀 수 있을 것인가?<sup>40)</sup>

노동자와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과 지식인의 연대는 서로에게 참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폭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중은 지식인을 통해 간악한 자본의 현실을 인식하고, 지식인은 현장에 기초한 민중의 삶을 통해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민중과 지식인의 연대가 실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 이 속에는 내장되어 있다. 『마산문화』는 마산, 나아가 경남이라는 지역 속에서 현장과 지식인을 구체적으로 매개하기 위한 실천적 모색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설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5. 나가면서

80년대 무크지는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신군부의 대규모 정간물 등록 취소로 인해 본격화되었지만, 그것의 사회적 필요성은 그보다 일찍 제기되고 있었다. 폭압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 억눌려 있던 표현의 욕망은 이 균열의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었으며, 30종의 무크지는 이러한 욕망의 소산이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억압하고 있던 강력한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였으며,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한 표현이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간행된 무크지들은 공히 엘리트문화와 서울/중앙 중심주의에 대한 타개와 더불어 각각의 지역을 소중한 삶의 현장으로 받

40) 『마산문화』 3권, 청운, 1984.12, 24쪽.

드는 수평적 지역주의를 천명하였는데, 이는 억압된 민중을 해방하고 현실을 변혁함으로써 참된 삶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대의 민주적 열망의 표현이었다.

이 글은 지역적 정체성과 자부심이 각별했던 마산을 중심으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었던 지역 문화 운동의 전체적 흐름과 구체를 살핌으로써, 뜻밖에 도래한 것처럼 보이는 무크지시대가 당대 변혁 운동의 한 산물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재경마산학우회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 지역의 학생들을 깨우고, 다시 지역 시민 사회로 확산되어 민중의 삶과 지역 사회의 변혁을 도모하는 경이로운 양상을 우리는 『남도』에서 <집현보>를 거쳐 『마산문화』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남도』에서 『마산문화』에 이르는 ‘마산’의 변혁 운동의 과정은 7,80년대의 폭압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지역’, ‘이론-현장’, ‘지식-실천’, ‘지식인-민중’이 상호침투함으로써 운동의 역량과 성격을 생산적으로 확대해간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크지 『마산문화』는 80년을 전후로 하여 펼쳐진 이러한 일련의 변혁 운동의 과정적 계기로서 출현하였으며, 그러한 운동 과정의 주요 매개고리이자 (문화적) 거점으로서 기능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노협(1990)과 민주노총(1995)이 결성되기 전까지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마창노련’(마산창원노동조합연합/1987)의 결성 역시 『마산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과 지역, 지식인과 민중이 상생적인 교류와 연대를 통해 삶의 실제적 현장을 변혁하고자 했던 ‘마산’의 사례는 80년대 ‘무크지시대’가 담고자 했던 시대정신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물증이다.



## 참고문헌

### ■ 1차 자료

『마산문화』, 『남도』, <집현보>, 『삶의 문화』, 『지평』, 『창작과비평』, 『실천문학』, 경향신문, 경남도민일보,  
박진해 인터뷰(대면), 2014.8.13(수) 15:30~18:00,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박영주 인터뷰(전화), 2014.8.18(월) 11:00~12:30.

### ■ 2차 자료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호, 한국시학회, 2013.8.  
김병익, 『글 뒤에 숨은 글』, 문학동네, 2004.  
김상봉,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 서중석 외,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김은경,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원으로서 4월혁명 재평가」, 『다시보는 한국민주화운동』, 선인, 2010.  
김정환·박명윤·이은봉·하영권(좌담), 「80년대와 지방문화운동」, 『실천문학』 5호, 1984.10.  
김형기, 「양서협동조합 운동을 회고한다」, 『양서협동조합운동』, 대성, 2011.  
김희욱, 「부산양서조합」(『양서협동조합운동』,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대성, 2011.  
박진해, 「경남양서보급회를 돌아보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양서협동조합운동』, 대성, 2011.  
박철규, 「부마민주항쟁과 학생운동」,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2003.  
박태순·이명원(대담). 「소설가 박태순에게 들어보는 1980년대와 『실천문학』, 그리고 문학운동」, 『실천문학』 105호, 2012·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부마민주항쟁 증언집』(마산편), 불휘미디어,

2011.

서익진, 『『마산문화』의 소개와 평가』, 『인문논총』 30집, 경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12.

원재길, 『80년대 문학 종합 무크지의 실태』, 『문화예술』 124호, 1989.

이은진, 『3·15마산의거의 지역적 기원과 전개』, 정근식·이호룡 편,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선인, 2010.

이은진,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도서출판 불휘, 2008.

이재오, 『한국 학생운동사』, 파라박스, 2011.

이정식, 『새로운 학생운동사』, 도서출판 힘, 1993.

임현영, 『1980년대 무크지를 통한 문학운동』, 『작가연구』 15호, 깊은샘, 2006.

차성환,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1, 2』, 『기억과 전망』 8/9권, 2004·가을/겨울.

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37집, 한국문학회, 2004.



무크지는 폭압적인 1980년대 현실에서 등장한 문화 게릴라적 성향의 부정기간행물이다. 다양한 성격을 지닌 80년대 무크지를 단선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들을 아우르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탈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에서 간행된 무크지들의 중요한 성격을 해명할 수 있는 한 사례로서,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변혁 운동 과정과 그 과정적 계기로서 등장한 『마산문화』의 성격을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 『마산문화』만을 다루지 않고 7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재경마산학우회나 그 이후 전개된 경남양서보급회의 활동 등을 함께 살핀 것은, 무크지 『마산문화』가 우발적 계기에 의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변혁 운동의 과정 속에서 출현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이 작업은 『마산문화』를 꾸린 변혁 운동 주체들의 역량 형성 과정을 살피고, 이들이 지향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문화운동 내용의 세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무크지시대의 배경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 글은 지역적 정체성과 자부심이 각별했던 마산을 중심으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었던 지역 문화 운동의 전체적 흐름과 구체를 살핌으로써, 뜻밖에 도래한 것처럼 보이는 무크지시대가 당대 변혁 운동의 한 산물이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70년대 중반 ‘재경마산학우회’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 지역의 학생들을 깨우고, 다시 지역 시민 사회로 확산되어 민중의 삶과 지역 사회의 변혁을 도모하는 양상을, 재경마산학우회보 『남도』에서 경남양서보급회보 <집현보>를 거쳐 무크지 『마산문화』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남도』에서 『마산문화』에 이르는 변혁운동의 과정은 7,80년대의 폭압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지역’, ‘이론-현장’, ‘지식-실천’, ‘지식인-민중’이 상호침투함으로써 운동의 역량과 성격을 생산적으로 확대해간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크지 『마산문화』는 1980년을 전후로 하여 펼쳐진 이러한 일련의 변혁 운동의 한 과정적 계기였으며, 그 운동 과정의 주요 매개고리이자 문화적 거점으로서 기능하였다.

주제어 : 무크지, 마산문화, 마산, 1980년대, 재경마산학우회, 남도, 경남양서보급회, 집현전, 지역 변혁 운동

K C I

## Abstract

###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the emergence of Mook

– Focusing on the 'Masan culture' –

Kim, Mun-joo

Mook is a irregular publication that appeared in despotic 1970s with tendency of cultural guerilla.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Mook in 80s that have various character, but one of the most distinct characters that encompass these can be said 'Post-centralism'. In this article, the character of <Masan culture> is cleared up as a case that can explain important character of Mook that were published in region, appeared as the series of reform movement that was deployed around Masan and progressive momentum. The reason that not only 'Masan culture' but also 'Masan student Association in Seoul' and 'Kyungnam good-book spread center' are ranged over is caused by awareness that Mook <Masan culture> didn't appear accidentally but appeared in the process of local reform movement. It can be said that this work is looking at forming capacity of main agent who set up <Masan culture> and identifying the detail of cultural movement that they wanted to aim and achieve. It seems to be a opportunity for us to think background and context of The Mook era concretely.

This article explain overall flow and concreteness of local reform movement that happened from mid 70s to mid 80s in Masan where was particular about local identity and pride. Through it, it is cleared

up The Mook-era which its advent seems unexpected was one product of reform movement of the age. It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process of reaching 'Masan Student Association in Seoul' <Namdo> to 'Kyungnam good-book spread center' <Gyphyunbo> and Mook <Masan culture> that the movement which began from 'Masan Student Association in Seoul' raised local students in the middle of 70s, aspect that look after the people's life and revolution of local community because it spread to civil society again. Reform movement process from <Namdo> to <Masan culture> can be a important case that expand movement capability and character productively by interpenetrating of 'center-region', 'theory-actuality', 'knowledge-practice', 'intellectual-populace' to overcome the despotic reality in 70,80s. Mook <Masan culture> was the proceptive cause of series of reform movement that happened around 1980s. Moreover, it functioned as a major mediating-link and cultural base of that movement process.

Key words : mook, Masan-culture, Masan, 1980s, Masan Student Association in Seoul, Namdo, Kyungnam good-book spread center, Gyphyunjeon, local reform movement.

이 논문은 2014년 8월 31일에 접수되어 9월 15일~30일까지 심사를 거쳐  
2014년 10월 12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